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백 지 숙
조교수 도 현 심
교 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Lecture : Jeesook Baik

Assistant Prof. : Hyun Sim Doh

Prof. : Seong Yeon Park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As a quality of dyadic relationships in the family, individuation refers to the interplay between the connectedness and separateness of family member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1) to develop a self-report measure of Korean late adolescent's individuation; 2)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newly developed measure. 435 (165 male, 270 female)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KLAIQ), and Korean version of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ree subdimensions of individuation were identified: Connectedness(7 items), Self-confidence(5 items), and Parent control(4 items). A total 16 items of the KLAIQ were found to have acceptable reliability and face and construct validity. Scale scores from the KLAIQ correlated in the predicted pattern with the SACQ. Individuated students demonstrated the highest college adjustment scores while ambiguous students yielded the lowest. Therefore, it would appear that the KLAIQ can adequately measure individuation in Korean late adolescence.

I. 서론

부모-자녀 관계는 인생 전 주기를 거쳐 계속되는 지속적인 관계이지만, 각 발달 단계마다 조금씩 변화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에 의미있는 전환을 겪게 된다. 즉 이제까지 의존적·일방적이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청소년기부터 보다 평등하고 양방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정신분석학적 입장의 학자(Blos, 1979; Hoffman, 1984; Lawler, 1990)들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사이에 지속되는 부모와의 연결(connection)을 발달상의 미숙함으로 간주하며 청소년의 발달 과제로 부모로부터의 독립 혹은 분리(separateness)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의 많은 연구들은 건강하고 잘 적응된 청소년들에게서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Douvan & Adelson, 1966; Lapsley, Rice, & Shadid, 1989; Quintana & Lapsley, 1987). 오히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조화롭고 애정 어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관계가 그들의 정신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Bell & Bell, 1983; Kenny, 1987; Offer & Offer, 1975).

이에 따라 정신적 분리만이 강조되었던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재검토되었고, 정신적 분리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의 연결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Josselson, 1988). 건전한 분리는 부모와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오히려 가능하며, 이러한 분리를 통해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여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듯 분리와 연결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매트릭스의 양면, 또는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제외시킨다면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청소년의 주요한 과제를 부모와의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 안에서 개체감(sense of individuality)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체화(individuation)를 가족 구성원의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 Grotevant과 Cooper(1982, 1985, 1986)에 의해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개체화 연구에서 분리, 연결 그리고 분리와 연결의 역설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Rice, Cole, & Lapsley, 1990; Quintana & Lapsley, 1990; Quintana & Kerr, 1993), 또한 개체화가 자아정체감 발달(Baik, 1997; 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Santilli & O'Brien, in press), 평생 직업 선택(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대학 적응도(Baik, 1997; Montemayor & Flannery, 1991)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렇듯 지난 십여 년 간 개체화의 이론적인 면에서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개체화 척도의 발전은 이를 따라주지 못한 듯하며, 적절한 개체화 척도의 부재는 개체화 연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개체화 연구에 사용된 대표적인 개체화 척도를 살펴보면 FIT(Family Interaction Task; Grotevant & Cooper, 1982, 1985)와 AIM(Adolescent Individuation Measure; O'Brien, DeSantis, & Santilli, 1988)이 있다. FIT는 가족이 함께 모여 20분간, 무한정의 경비를 갖고 2주간의 가족 휴가 계획을 짜는 것으로, 가족의 대화는 녹음되어 후에 분석되어진다. 이후 Grotevant과 Cooper(1986)는 FIT를 통해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네 개의 개체화 요인을 밝혀내었다. 두 개의 분리 요인으로 자기 주장(자신의 관점을 갖고 분명히 전달하는 능력)과 분리(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 그리고 두 개의 연결 요인인 투과성(타인의 관점에 대한 개방성과 반응성)과 상호성(타인의 견해에 대한 민감성과 존경의 표현)이다. FIT는 가족의 분리도와 연결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전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참가해야 하며 또 가족의 대화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제한점이 있었다. 한편, FIT의 네 개의 개체화 요인을 바탕으로, O'Brien과 동료들(1988)은

AIM을 개발하였다. AIM은 실시하기 용이한 설문지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FIT의 결점을 많이 보완하였으나, 분리와 연결을 각기 측정하는 척도로 개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지닌다 (Baik, 1997).

그러나 최근 Baik(1997)이 개발한 LAIQ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는 이제까지의 개체화 척도들이 지닌 결점을 보완시킨 척도로 여겨진다. LAIQ는 연결의 영역인 연결과 세가지 분리의 영역인, 부모의 통제, 능력감, 독립심으로 구성된 설문지 형식의 척도로, 분리와 연결을 바탕으로 네가지 관계유형(relationship category)을 파악함으로써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1>. Baik(1997)에 의하면, 개별화형(Individuated)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정도의 분리와 연결을 보인다. 즉, 이들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으며, 다가올 성인기의 여러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부모와 자신의 삶 사이의 분명한 한계를 유지하지만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속에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다. 가독립형(Pseudoautonomous)은 가족관계에서 높은 분리와 낮은 연결의 정도를 보인다. 이들 청소년의 분리는 주로 부모에 대한 무관심과 정서적 거리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신의 독립만을 주장하며 부모로부터의 도움은 일절 거절한다. 의존형(Dependent)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낮은 분리와 높은 연결의 정도를 보인다. 이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안주하여, 독립된 성인으로 자신을 세울 노력은 미루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시 부모의 조언을 구하며 따르고 있다. 애매형(Ambiguous)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낮은 분리와 낮은 연결의 정도를 보인다. 이들은 부모의 도움없이 일상의 일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부모와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 후기 “개체화”에 대한 연구는 따로 찾기 어려우나, 개체화 연구와 유사하게 부모-자녀 사이의 분리와 연결이란 관계의 양면

분리		
지	고	
의존형 (Dependent)	개체화형 (Individuated)	고
애매형 (Ambiguous)	가독립형 (Pseudoautonomous)	연결 지

<그림 1> 개체화의 네가지 관계 유형

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에 관한 연구(공인숙, 1989; 도현심, 1996; 이영주, 1990)와 성인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에 관한 연구(유은희와 박성연, 1991), 청소년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윤승경, 1989)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계의 분리적 차원과 연결적 차원에 대한 정의의 차이 이외에도,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양방향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부모의 양육행동만을 다루었으며, 성인의 애착 및 자율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이 기존의 성인 자녀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후기 개체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윤승경(1989)의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과 독립성의 관계를 조사하여 청소년 후기 개체화 연구에 매우 근접하였으나, 애착과 독립성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조사함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가 부모-자녀관계의 중요한 두 측면인 분리와 연결, 그리고 이미 분리와 연결의 상호관계를 조사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도 이미 개체화 연구의 토양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청소년 후기 개체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후기 개체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절한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로 여겨지는 LAIQ를 단순히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시키려 함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청소년후기 개체화척도를 개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후기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는 미국과 한국에서

다소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개체화 과정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척도의 개발은 척도의 합당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이용하여 척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측정되며, 타당도는 안면타당도(face validity)와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인타당도는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와 대학적응도의 관계를 통해 조사된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후기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적응과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Bloom, 1987; Hoffman & Weiss, 1987; Kenny & Donaldson, 1991; Lapsley et al., 1989;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Rice et al., 1990), 네 개의 개체화 유형과 관련하여 개체화형 청소년이 가장 높은 대학적응 점수를 보인 반면, 애매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Baik, 1997).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새로이 개발된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2.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신뢰도는 적실한가?
3.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는 타당한가? 구인타당도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는 대학적응척도(SACQ)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보다 자세히, 네 개의 개체화 유형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정도의 분리와 연결을 보이는 개체화형 청소년의 대학적응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35명(남학생 165명, 여학생 270명)이었다. 18~21세 학생은 336명(77.4%)이었고, 나머지 학

생들도 모두 22~27세로서, 대부분이 청소년 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과 1학년이 각각 219명(50.5%)과 96명(22.1%)으로서 전체의 72.6%에 해당되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매우 다양하여 전체 학생을 대표한다 볼 수 있다. 공학계열이 107명(24.6%)으로 제일 많았고, 가정계열이 103명(23.7%), 사회계열이 55명(12.6%), 인문계열이 47명(10.8%), 예술계열이 34명(7.8%), 자연계열이 28명(6.4%), 체육계열이 5명(1.1%), 기타가 18명(4.1%)이었다. 학생들의 부모는 절대적으로 양친부모가 많았으며(416명, 95.5%), 11명(2.5%)의 학생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2. 측정도구

1)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

(1) 예비문항의 구성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수집할 경우 다음의 기준은 고려되어야 한다(Babbie, 1995). 첫 번째 기준은 안면타당도이다. 만일 '부모와의 연결' 영역을 위한 문항이라면, 각각의 문항은 표면상(on its face) 부모와의 연결을 나타내는 문항이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문항의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통제를 위한 문항이라면 오직 부모의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어야 이와 유사하나 다른 차원인 부모의 훈육이나 처벌 등을 위한 문항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비문항의 수집에 있어, The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LAIQ)(Baik, 1997)의 기본 구조가 참조되었다. LAIQ는 모두 네 개의 하위영역, 즉 연결의 영역인 연결(10 문항) 그리고 세가지 분리의 영역인, 부모의 통제(3 문항), 능력감(3 문항), 독립심(3 문항)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개체화 척도를 개발함에,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LAIQ의 네 개의 하위영역을 참조한 이유는 LAIQ가 이미 적절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척도로 두 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네 개의 개체화 하위영역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들 하위영역은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예비문항 수집을 위한 임시 구조로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의 11문항, 그리고 분리의 12문항 (세계의 하위영역에서 각 4문항씩)이 수집되었다. 이들 문항의 수집시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고려되었는데, 특히 부모의 애정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는 신체적 애정의 표현에 관한 문항보다는, 심리적인 애정에 관한 문항이 수집되었다. 새로이 수집된 23문항은 기존의 19문항과 합쳐져서 모두 42개의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예비문항을 구성한다(부록 1). 이들 42 문항은 문자 그대로 예비문항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후기 개체화 과정의 하위영역을 밝히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예비문항 수집시 바탕이 된, LAIQ의 네 개의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결은 청소년과 부모사이에 지속되는 연결의 관계를 말한다. 비록 부모와의 유대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지지 않는 단일 영역이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연결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관여(청소년 자녀의 생활과 복지에 관한 부모의 참여와 관심), 부모지원(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청소년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 애정(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그리고 의사소통(부모와 청소년 자녀사이의 대화의 개방성)등 연결의 다섯 분야가 문항을 바탕으로 임의로 설정되었다. 단일영역인 연결과 달리, 분리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의 통제(parent control), 능력감(sense of mastery), 그리고 독립(independence).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이 보는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청소년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이다. 능력감이란 일련의 일을 수행함에 자신감을 갖고 개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의 능력을 말하며, 독립이란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청소년의 능력을 말한다.

응답양식은 LAIQ의 양식대로 문항 내용의 빈도에 따라 1점에서 6점까지 반응하도록 하였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1점, 언제나 일어나는 일

라면 6점으로 점수가 커질수록 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전체에 대해 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동일한 문항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와 다를 경우 본인이 생각할 때 부모와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예비문항을 위한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42개 예비문항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묻기 위해 다섯 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각 문항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였으며 나아가 학생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문항이 될 수 있도록 문항의 수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중부정의 문항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정문에 대한 응답양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듯하였다. 따라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중부정의 문항은 수정되었다 (예: 부모님이 나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부모님이 나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의해 어색한 문항들을 지적하였고, 우리의 문화에 맞는 표현법으로 수정하였다(예: 내 삶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I am the one who is in charge of my life)⇒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이렇듯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큰 도움이 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수정은 응답양식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빈도를 측정하는 응답양식에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 언제나 그렇다”의 6점 척도에 응답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따라서 5점과 4점 척도가 제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점 척도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4점이나 5점 척도에 익숙해 있기에 이를 채택함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예비조사에 남학생이 빠진 아쉬움이 있으나 설문지의 내용이 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문장의 표현에 관해서는 여학생이 보다 세밀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예비조사에서 수정된 최종

적 42개 예비문항이 실지 조사에서 사용되었다.

2) 대학적응척도(SACQ: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대학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aker와 Siryk(1984)이 제작한 SACQ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ACQ는 총 67문항의 척도로 모두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개인적-정서적 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학교소속감(goal commitment-institutional attachmen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문화와 맞지 않는 9 문항이(예: 나는 대학 기숙사에 사는 것이 좋다.) 삭제되어 모두 58문항만이 사용되었으며 9점 척도인 응답양식도 4점 척도로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학문적 적응은 Cronbach's $\alpha=.85$ (23문항), 사회적 적응은 $\alpha=.83$ (14문항), 정서적 적응은 $\alpha=.82$ (15문항), 그리고 학교소속감은 $\alpha=.66$ (13문항) 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강의실에서의 질문지 배부·수집 및 snowball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즉, 서울의 한 여자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전공생들이 모인 한 개의 교양과목 강의실과 두 개의 전공과목 강의실에서 담당 교수의 주관 하에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한 시간은 15-20분이었다. 또한 이들 여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다음 수업시간에 회수되었다. 질문지에 학생의 이름이나 학생번호등을 기입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였으며, 학생들의 질문지 조사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와 AMOS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42개 예비문항을 변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모델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을, 회전 방식은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 후기 개체화 하위 척도들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개체화와 대학적응도의 관계를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 개발

1)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문항의 간결화와 개체화의 이론적 검증을 위해 새로이 작성된 42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절차는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들은 모두 8개로, 이들은 전체변량의 57%를 설명하였다. 요인 matrix는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해 회전되었다. 요인에서 요인부하량 ± 0.40 이상이된 다른 요인들에서는 ± 0.30 미만인 문항만을 선별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이 ± 0.30 이면 최저한의 기준에 부합되고, ± 0.40 이면 보다 중요하며, ± 0.50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Hair Jr, et al., 1995). 또한 요인 부하량은 다른 상관(correlation)에 비해 비교적 큰 표준오차를 보이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요인 1에서는 11문항 (3, 7, 15, 17, 19, 25, 29, 31, 35, 37, 39)이, 요인 2에서는 6 문항 (2, 6, 8, 22, 24, 38)이, 요인 3에서는 6 문항 (4, 14, 20, 26, 32, 40)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요인 4, 6, 7, 8에서는 단 한 문항도 남지 않았으며 요인 5에서는 두 개의 문항이 남았으나 적어도 한 요인이 3개 이상의 문항을 가져야 척도의 하위요인이 될 수 있기에, 요인 1, 2, 3만이 개체화의 하위요인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남은 문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요인 1은 “연결”, 요인 2와 3은 분리의 요인으로, 요인 2는 “자아신뢰감”, 그리고 요인 3은 “부모의 통제”로 명명되었다 (표 1).

2) 확인적 요인분석

척도 개발시 요인분석한 결과를 검증함은 매우 중요한 데,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AMOS(Arbuckle, 199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결”, “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라는 실제 구조가 가상되어진 구조 (요인 1, 2, 3)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와 요인내 각 문항들의 통계상 유의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사용된 두가지 기준은 Chi-square goodness of fit 계수와 Comparative fit index (CFI: Bentler, 1990)이다. CFI는 0에서 1까지의 범위에 있으며, 1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완벽한 일치를 의미한다. 11문항으로 구성된 연결은 Chi-square goodness of fit 계수가 164,931(44 df) 이었고 CFI가 0.941로 낮

〈표 1〉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요인 구조

문 항	요인부하량
요인 1: 연결	
3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63227
7 나는 부모님과 내가 대화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66112
15 부모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눈치채신다.61195
17 부모님과 나는 정서적으로 가깝다.72298
19 부모님은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64058
25 부모님은 내 말을 잘 경청해 주신다.72626
29 내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이를 함께 걱정해 주신다.55306
31 부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다.78281
35 부모님은 나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62160
37 기분이 언짢을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63623
39 부모님은 나에게 다정하시다.72158
요인 2: 자아신뢰감	
2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62810
6 내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49785
8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74362
22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자신이 없다.50588
24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67992
38 나는 내 삶의 여러 도전들을 잘 처리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74599
요인 3: 부모의 통제	
4 부모님은 내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결정을 바꾸도록 나에게 압력을 가하신다.71569
14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충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59461
20 부모님은 내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다.48892
26 부모님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신다.71978
32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신다.48319
40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내게 조언을 하신다.54027

은 일치도를 보였다. 따라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치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제거해야 했는데, MI(Modification Index)와 표준오차공분산(standardized residual covariance)을 기준으로 삼았다. MI는 그 문항의 제거시 전체 모델의 개선도(즉, Chi-square 계수의 감소)를 말하며, MI가 3.84이상이면 통계상 유의한 개선을 의미한다(Hair Jr. et al, 1995). 표준오차공분산이 1.96 이상인 문항들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을 기준으로 가장 큰 MI와 표준오차공분산을 야기시키는 문항 39가 제거되었다. 제거한 후, Chi-square는 113,374(35 df), CFI는 0.955로 개선되었다. 모델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낮은 일치도를 보이기에 그 다음에 문항 15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Chi-square는 78,039(27 df), CFI는 0.967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모델이 적합한 일치도를 보일때까지 되풀이하였고, 그 결과 문항 3과 7이 추가적으로 제거되었다. 최종 모두 7문항(17, 19, 25, 29, 31, 35, 37)이 남게 되었으며, Chi-square은 22,008(14 df, $p=.077$), CFI는 0.992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아신뢰감"은 5문항(2, 8, 22, 24, 38) (Chi-square = 6.918, 5 df, $p=.227$; CFI = 0.997), "부모의 통제"는 4문항(4, 14, 26, 40) (Chi-square = 0.858, 2 df, $p=.651$; CFI = 1.00)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이렇게 하여 한국청소년후기 개체화척도의 42개 예비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시 모두 19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시 7문항을 잃고, 최종 16문항의 척도로 완성되었다 <부록 2>.

2. 개체화 유형

개체화의 양면인, 연결과 분리(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변인들은 이분되었다. 이러한 이분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변인들이 단봉의(unimodal) 정상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분의 기준으로는 중앙치보다 평균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평균을 사용할 때 높은 연결을 보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의 차가 줄어들어 네 개의 개체화 유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림 1>과 같이 네

개의 유형이 만들어졌다. 즉 연결과 분리(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¹⁾)의 점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는 개체화형, 연결의 점수는 평균 미만이고 분리의 점수가 평균 이상일 경우는 가독립형, 연결의 점수는 평균 이상이고 분리의 점수가 평균 미만일 경우는 의존형, 연결과 분리의 점수가 모두 평균 미만인 경우는 애매형이었다. 먼저 부모의 통제를 분리의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개체화 유형의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square = 7.712, 1 df, $p < .01$). 31.3%의 청소년이 개체화형이었으며, 애매형은 25.5%, 가독립형은 22.5%, 그리고 의존형의 청소년은 20.7%였다. 반면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개체화 유형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square = .245, 1 df, $p = .62$). 의존형의 청소년이 27.4%, 애매형이 26.4%, 개체화형이 24.6%, 그리고 가독립형이 21.6%의 순이었다.

3.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내적합치도를 측정하였다. 일곱 문항인 "연결"은 .86, 다섯 문항인 "자아신뢰감"은 .80, 네문항인 "부모의 통제"는 .7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안면타당도와 구인타당도로 검증되었다. 안면타당도는 두명의 독립된 아동학자가 문항의 수집단계시 42개의 예비문항을 각기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구인타당도는 대학적응도와외관계를 통해 검증되었다. 개체화의 네가지 유형이 각 대학적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집단에 대해 변량분석 및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중다범위 검정(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예측했던대로 개체화와 대학적응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표 2, 3), 개체화형이 모든 영

1) 부모의 통제를 나타내는 4개의 문항은 모두 역코드 되어졌기에 높은 부모의 통제 점수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낮은 부모의 통제 점수는 부모가 자녀를 보다 더 통제함을 의미한다.

〈표 2〉 연결과 부모통제에 의한 개체화 관계유형과 대학적응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N=435)

	개체화 관계범주				F(3, 431)
	애매형(111명)	가독립형(98명)	의존형(90명)	개체화형(136명)	
학업 적응	53.16 _b (8.52)	54.61 _b (7.85)	57.04 _a (7.89)	59.74 _a (5.59)	14.17***
사회적 적응	34.52 _b (6.73)	35.03 _b (6.34)	37.09 _a (6.63)	37.45 _a (5.92)	5.93**
정서적 적응	38.46 _b (7.05)	39.53 _b (6.89)	40.51 _b (7.44)	42.56 _a (7.73)	7.03***
대학 소속감	34.49 _b (5.72)	34.67 _b (4.51)	37.23 _a (4.50)	36.38 _a (4.25)	7.89***

** $p < .01$ *** $p < .001$

〈표 3〉 연결과 자아신뢰감에 의한 개체화 관계유형과 대학적응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N=435)

	개체화 관계범주				F(3, 431)
	애매형(115명)	가독립형(94명)	의존형(119명)	개체화형(107명)	
학업 적응	52.16 _c (8.35)	55.89 _b (7.61)	55.92 _b (7.15)	61.72 _a (9.35)	25.83***
사회적 적응	33.99 _b (6.54)	35.70 _b (6.46)	35.46 _b (6.16)	39.36 _a (5.59)	14.88***
정서적 적응	37.90 _c (6.61)	40.27 _b (7.23)	39.98 _b (6.38)	43.72 _a (8.49)	12.36***
대학 소속감	34.05 _c (5.21)	35.21 _{bc} (5.09)	35.93 _b (4.47)	37.59 _a (4.09)	10.78***

*** $p < .001$

참고) 동일한 아래첨자(횡열 내에서)는 Duncan의 사후검증($p < .05$)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평균을 의미한다

역에서 가장 높은 대학적응 점수를 보인 반면, 애매형이 가장 낮은 적응 점수를 보였다. 부모의 통제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개체화형은 모든 대학적응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서적 영역에서만 의존형과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존형은 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독립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적응점수를 보였다. 반면,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개체화형이 유의하게 높은 대학적응 점수를 모든 영역에서 보였으며, 의존형과 가독립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최종적으로 완성된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는 세 개의 개체화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 개의 연결 하위척도와 두 개의 분리 하위척도(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이다. 연결은 청소년과 부모사이에 지속되는 연결의 관계로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의로 설정했던 연결의 다섯 분야 중 부모지원의 문항은 한 문항도 남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연결의 관계에서 부모의 실질적, 물질적 지원보다는 애정이나, 정서적

지원 등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아 신뢰감이란 일련의 일을 수행함에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처리해갈 수 있다는 청소년의 신념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이 보는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청소년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하며 모두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중 16문항이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개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하위척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체화 과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아신뢰감이란 개체화의 정신내적(intrapsychic) 과정을, 연결과 부모의 통제는 개체화의 인간상호적 관계(interpersonal)를 다루는 것으로 개체화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Cohler, 1983).

LAIQ의 19문항과 비교해보면,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의 연결의 일곱 문항 중 세 문항이, 자아신뢰감의 다섯 문항 중 한 문항(능력감)이, 부모의 통제 네 문항 중 두 문항이 LAIQ의 문항과 동일하다. 이렇게 모두 여섯 문항을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와 LAIQ가 공유하고 있으나, 이 두 척도는 완전히 다른 요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별개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즉,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LAIQ가 세 개의 분리의 하위척도(능력감, 독립, 부모의 통제)를 갖는 반면,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는 두 개의 하위척도(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만을 갖는다. 능력감과 독립이란 두 개의 LAIQ의 하위척도가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에서는 자아신뢰감이란 단일 척도로 통합된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청소년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한국에서 독립은 하위척도로서의 중요성을 잃고 능력감의 문항들과 합쳐져서 자아신뢰감이란 새로운 하위척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가 LAIQ와는 다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을 네 개의 개체화 유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따라서 두 척도 모두 진정한

의미의 개체화 척도라 할 수 있다. 개체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가 분리의 측면이었을 경우 개체화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애매형 청소년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부모의 통제와 관련하여 개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비교적 많은 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자녀에 대한 통제를 절제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 계속 통제를 가하는 부모 또한 상당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네 개의 개체화 유형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로(72.6%), 이들은 자아신뢰감을 계속 형성, 획득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아신뢰감과 관련하여서는 대학교 고학년, 혹은 대학을 졸업한 초기 성인기에 개체화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는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다. 연결의 Cronbach's α 는 .90, 자아신뢰감은 .81, 부모의 통제는 .76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이다. 타당도는 이미 확인되어진 안면타당도 이외에 구인타당도도 검증되었다. 즉, 기존의 청소년 발달 이론과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로 측정된 청소년의 개체화 정도는 대학 적응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모든 대학적응 영역에서 개체화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애매형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분리의 하위척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개체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통제를 분리의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개체화형은 의존형과 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다른 세 적응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의존형은 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적응에서 가독립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체화 과정에 있어 부모의 통제가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에의 순종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통제가 후기 청소년의 적응에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모의 통제와는 달리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개체화는 의존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적응 점수를 보였고, 의존형과 가독립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후기 개체화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서 본 연구는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 한국청소년 후기개체화척도를 개발하여,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개체화 유형의 분류를 표본의 평균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형의 분류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표본에 의존되는 결합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 개체화 유형을 분류한 첫 연구이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나,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이 개발되어야겠다. 또한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가 보다 타당한 척도로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구인타당도를 위하여 개체화와 대학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자아정체감과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은 가정안에서 분리와 결합된 적당한 정서적 친밀감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돕는다고 보고하고 있다(Allison & Sabatelli, 1988; Baik, 1997; Grotevant & Cooper, 1985; Josselson, 1988; Quintana & Lapsley, 1990). 또한 구인타당도이외에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직 개체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고등학생이나 혹은 개체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성인 초기와 개체화의 활발한 과정 중에 있는 대학생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 개선할 수 있다면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는 우리나라 청소년 후기 개체화연구를 활성화 시켜, 청소년 후기 부모-자녀 관계, 발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 64-78.
- 2)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 1-11.
- 3) 유은희·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 139-158.
- 4) 윤승경(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 107-118.
- 6) Allison, M., & Sabatelli, R.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16.
- 7) Arbuckle, J. L. (1996). *Amos users guide version 3.6*. Chicago, IL: Smallwaters Inc.
- 8) Babbie, E. (1995).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7th ed.* (pp. 109-122). Belmont, CA: Wadsworth
- 9) Baik, J. S. (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10)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11) Baker, R. W., & Siryk, B. (1986). Explor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1-38.
- 12) Baltes, P. B., Reese, H. W., & Nesselroade, J. R. (1988).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13) Bell, D. C., & Bell, L. G. (1983). Parental

- validation and support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daughters. In H. D. Grotevant & C. R. Cooper (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p. 27-42). San Francisco: Jossey-Bass.
- 14) Bentler, P.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15) Bloom, M. V. (1987). Leaving home: A family transition. In J. Bloom-Feshbach & S. Bloom-Feshbach (Eds.), *The psychology of separation and loss* (pp. 232-266). San Francisco: Jossey-Bass.
- 16) Bi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17) Blustein, D. L., & Palladino, E. E. (1991). Self and identity in late adolesce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teg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 18) Cohler, B. J. (1983). Autonomy and interdependence in the family of adulthood: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23, 33-39.
- 19)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H. D. Grotevant & C. R. Cooper (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pp. 43-59).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 20)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Plenum.
- 21)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2). *Identity formation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An investigation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rocess antecedents*. Final report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22)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23)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29, 82-100.
- 24)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25)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26)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pp. 91-106). New York: Springer-Verlag.
- 27)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9.
- 28)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29)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1.
- 30)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Jr., C. E.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 31) Lawler, A. C. (1990). The healthy self: Variations on a them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652-654.
- 32) Nunnally, J. C.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 Hill.

- 33) Montemayor, R., & Flannery, D. J. (1991). Parent-adolescent relations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G.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2, pp. 729-734). New York: Garland.
- 35) O'Brien, R. W., DeSantis, J. P., Santilli, N. R. (Nov, 1988). *Construction of a measure of adolescent individuation*. Poster presented at the Virginia Developmental Forum, Ashland, VA.
- 36) Offer, D., & Offer, J. B. (1975). *From teenage to young manhood: A psychological study*. New York: Basic Books.
- 37) Quintana, S. M., & Kerr, J. (1993). Relational needs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49-354.
- 38) Quintana, S. M., & Lapsley, D. K. (1987). Adolescent autonomy and ego identity: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393-410.
- 39) Quintana, S. M., & Lapsley, D. K. (1990). Rapprochement in late separation-individuation: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13, 371-385.
- 40)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 41)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e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L.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부록 1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적도를 위한 예비문항
(42 문항)

분리 (21 문항)

부모의 통제

-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충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내게 조언하십니다.
- 부모님은 내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 부모님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 방식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화를 내십니다.
-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십니다.
- 부모님은 내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결정을 바꾸도록 나에게 압력을 가하십니다.

능력감

- 무엇인가 일이 잘못될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내 삶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자신이 없다.
-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 나는 내 삶의 여러 도전들을 잘 처리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나는 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나는 내 삶의 어려움을 편안한 마음으로 처리한다.

독립

- 내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이다.
-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나는 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진다.
- 나는 부모님과 내가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려주시도록 부모님께 의존한다.
- 나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께 의존한다.
-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 진하게 된 문항은 LAIQ의 문항임

부록 1

연결 (21 문항)

부모 관여

-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시다.
- 부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다.
- 부모님과 나는 서로에게 타인과 같다.
- 부모님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은 나에게 소원하시다.

부모 원조

-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은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
- 부모님은 내가 부탁드리면 기꺼이 나를 도와 주신다.
- 나는 내가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께서 나를 도와 주실지 확신할 수 없다.
-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일지라도 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다.

정서적 지원

- 기분이 언짢을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 부모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눈치

채신다.

- 내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이를 함께 걱정해 주신다.
- 내가 고민하는 바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내 기분을 더욱 나쁘게 만드신다.

애정

- 부모님과 나는 정서적으로 가깝다.
-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부모님은 나에게 다정하시다.

의사소통

- 나는 부모님과 내가 대화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 나는 부모님께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말씀드린다.
- 나는 부모님과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
- 부모님은 내 말을 잘 경청해 주신다.

* 신하게 된 문항은 LAIQ의 문항임

부록 2

한국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 (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연결

17. 부모님과 나는 정서적으로 가깝다. (애정)
19.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시다. (부모관여)
25. 부모님은 내 말을 잘 경청해 주신다. (의사소통)
29. 내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이를 함께 걱정해 주신다. (정서적 지원)
31. 부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다. (부모관여)
35.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애정)
37. 기분이 언짢을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정서적 지원)

자아신뢰감

2.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8. 나는 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22.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자신이 없다.
24.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38. 나는 내 삶의 여러 도전들을 잘 처리해나갈 수 있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부모의 통제

4. 부모님은 내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결정을 바꾸도록 나에게 압력을 가하신다.
14.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충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26. 부모님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신다.
40.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내게 조언하신다.